

팔리세이드 ‘하이루프’ 첫 선...패밀리 SUV 시장 공략

루프부 24cm ↑ ...국내 완성차 최초
스페셜 '블랙 잉크'·'XRT' 트림 신설
실내 공간 여유·지하주차장 진입도
가솔린 하이루프 7천530만원부터

현대자동차가 국내 완성차 업계 최초로 SUV 기반의 '하이루프' 모델을 앞세운 '2027 팰리세이드'를 출시했다.

2027 팰리세이드는 하이루프 모델을 비롯해, 프리미엄 디자인의 스페셜 트림 '블랙 잉크'와 아웃도어 지향의 'XRT' 트림을 새롭게 투입해 라인업을 대폭 확대하고, 트림별 주요 안전·편의 사양을 기본화했다.

31일 현대차에 따르면 2027 팰리세이드 '하이루프' 모델은 루프부를 240mm 높여 한층 여유로운 실내 공간을 확보했으며, 지하주차장 진입이 가능한 2천5mm의 전고로 설계돼 공간감과 실용성을 동시에 갖췄다.

2027 팰리세이드 하이루프 모델은 하이루프, 블랙 DLO 몰딩 등 하이루프 전용 외관 디자인이 적용되며,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21인치 알로이 휠, 피렐리 타이어 등이 기본사양으로 적용된다.

실내는 하이루프 앰비언트 무드램프와 스타리 스카이, 2way 팝업 LED 독서등, 21.4인치 하



현대차가 국내 완성차 업계 최초로 SUV기반의 '하이루프' 모델 '2027 팰리세이드'를 출시했다. 사진은 2027 팰리세이드 하이루프 모델.

〈현대차 제공〉

이루프 후석 스마트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등 프리미엄 패밀리 특화 사양을 기본 적용한 전용 내장 디자인으로 한 차원 고급스러운 이동 경험을 선사한다.

또한 스마트폰 듀얼 무선 충전과 UV-C 살균, 공기청정기, 냉온장 컵홀더 등이 포함된 2열 양문형 멀티콘솔과 VIP 전용 고급 카매트로 이뤄진 ‘VIP 패키지’도 새롭게 마련해 프리미엄한 실내 경험을 원하는 고객의 선택 폭을 넓혔다.

현대차는 2027 팰리세이드를 통해 캘리그래피를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디자인 스페셜 트림 ‘블랙 잉크’도 새롭게 선보인다.

블랙 잉크 트림은 2인치 블랙 알로이 휠과 피델티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등을 기본 적용해 다이내믹한 주행 성능을 갖췄으며, 블랙 잉크 전용 내·외장 디자인 적용으로 블랙 포인트를 차량 전반에 적용해 절제된 품격과 강렬한 존재감을 동시에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현대차는 아웃도어 지향의 리기드 디자인을 담은 'XRT' 트림도 준비했다.

XRT 트림은 전용 20인치 알로이 휠과 2열 통풍시트, BOSE 프리미엄 스피커 등을 기본 적용했으며, 아웃도어를 지향하는 단단한 디자인 요소가 가미된 라디에이터 그릴 & 가니쉬, 클래딩, 루프랙, 엠블럼, DLO 몰딩, 아웃사이드 미러 등 XRT 전용 파츠를 적용해 한층 강인한 인상을 구현했다.

이와 함께 기본 트림부터 지능형 안전 기술을 확대 적용했다.

익스클루시브트림에 12.3인치 대화면 클러스터와 파노라믹 키보드 디스플레이, 전방 충돌방지 보조,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고속도로 주행 보조,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주행), 어드밴스드 후석 승객 알람 등을 기본화했다.

판매 가격은 가솔린 9인승 기준 ▲익스클루시브 4천478만원 ▲H-Pick 5천40만원 ▲XRT 5천211만원 ▲캘리그래피 5천606만원 ▲블랙 잉크 5천767만원 ▲하이루프 7천244만원이며, 가솔린 7인승 기준 ▲익스클루시브 4천610만원 ▲H-Pick 5천203만원 ▲XRT 5천382만원 ▲캘리그래피 5천827만원 ▲블랙 잉크 5천977만원 ▲하이루프 7천530만원이다.

하이브리드의 판매 가격은 9인승 기준 ▲익스클루시브 5천77만원 ▲H-Pick 5천640만원 ▲캘리그래프 6천206만원 ▲블랙 잉크 6천367만원 ▲하이루프 7천844만원이며, 7인승 기준 ▲익스클루시브 5천140만원 ▲H-Pick 5천832만원 ▲캘리그래프 6천436만원 ▲블랙 잉크 6천606만원 ▲하이루프 8천159만원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2027 팰리세이드는 당사 최초의 SUV 기반 하이루프 모델과 블랙 링크, XRT 등 개성 있는 신규 트림을 대거 투입해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혔다”며 “안전 사양 기본화와 상품성 강화를 통해 국내 대형 SUV 시장에서의 독보적인 입지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욱 기자

현대차·기아, 부품 협력사 맞춤형 AX 지원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개소
품질·공정·데이터 기반 교육



ormation) 지원 플랫폼'이다.

해당 센터는 현대차·기아의 최첨단 교육 인프라, 협력사 네트워크, 전문 교육 노하우 등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결합한 대표적인 민간 협력 상생 모델로 추진된다.

현대차·기아는 올해 1·2차 부품 협력사 임직원 900여명을 대상으로 AI 전문 실무 교육을 우선 추진하고, 내년부터 연간 교육 인원과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해 부품 공급망 전체의 AX가
속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AI 특화 공동훈련센터는 현장 적용성에 초점을 맞춰 단순 이론 교육을 탈피하고 ▲협력사 AI 준비도 및 수준 진단 ▲직무별 단계별 맞춤형 AI 훈련 ▲자사 공장 불량 데이터 활용 실전 문제 해결 ▲AX 문화 확산 활동 등의 체계로 운영된다. /박선옥기자

/박선옥기자

기아, 대형 전동화 PBEV 'PV7' 티저 공개

기아는 31일 전동화 PBV 라인업의 두 번째 모델인 '더기아 PV7(The Kia PV7, 이하 PV7)'의 티저 이미지와 영상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사진〉

PV7은 기아의 PBV 전용 전기차 플랫폼 'E-G MPS(Electric-Global Modular Platform for Service)'를 기반으로 개발된 대형 PBV 모델이다.

기아는 PV7을 통해 전동화 PBV 라인업을 대형급으로 확장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고객의 비즈니스 환경과 폭넓은 라이프스타일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이번 티저는 사용자의 다양한 비즈니스와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P V7의 콘셉트를 바탕으로, 고객의 목적과 사용 방식에 따라 유연하게 확장되는 PBV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특히 블랙 색상의 후드와 필러 가니쉬는 차체 색상과 강한 대비를 이루고 전·후면 램프의 시그니처 그래픽과 조화롭게 어우러져 기아 PBV만의 독창적이고 각인화 디자인 전체성을 완성했다.

PV7은 E-GMP.S 플랫폼을 바탕으로 넓고 유



연한 공간을 제공해 전문적인 업무 현장부터 일상적인 이동과 여가 활동에 이르기까지 고객의 다양한 활용 목적에 대응하는 새로운 모빌리티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기아는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독일 하노버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상용차 박람회 'IAA 트랜스포테이션 2026'에서 PV7을 세계 최초로 공개한다. 기아는 이번 행사에서 PV7 공개와 함께 PBV 전략 및 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PV5 파생 모델을 전시해 고객별 활용 목적에 따라 폭넓게 확장되는 PBV 라인업의 상품성과 확장성을 선보일 계획이다. / 박선욱 기자

/박선옥기자

KH MEDICHECK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60415-중-211304호

건강검진

매일체크 ✓ 행복체크

예약 및 문의 062)363-4040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